

신풍제약, 메디커튼 발명특허대전 대통령상 수상

기존 유착방지제 단점 보완...유착방지제 중 최다 적응증 보유

기사입력시간 : 2015-12-01 17:22:24

신풍제약(대표 유제만)과 포스텍(한세광 교수)이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유착방지제 '메디커튼'이 '2015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'에서 대통령상(대상)을 수상했다.



메디커튼주사는 생체적합성과 상처치유력이 우수한 '히알우론산(H.A)'과 항혈액응고 및 항염증 작용이 뛰어난 '하이드록시에틸스타치(HES)'를 복합하여 수술 후 유착방지용 주사제로 개발된 제품이다.

고점탄성 히알우론산에 의한 물리적 장벽(막) 형성 기능뿐만 아니라 유착 발생의 근간을 이루는 혈전 및 염증형성을 억제해 탁월한 유착방지 효능을 나타내는 것이 다양한 임상시험으로 입증됐다.

메디커튼은 이러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지난 2012년 자궁경 수술 후 유착방지 허가를 받은 이후, 2013년에 복부(복강경) 수술과 척추수술에 대한 적응증을 연이어 획득했다.

또 올해 1월에는 '갑상선 수술', 10월에는 '비/부비동 수술 후 유착감소 효과'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하며 유착방지제로서 가장 넓은 범위의 5개의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.

이혜선 기자

Copyright © 2011 **청년의사**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. 무단전재나 재배포를 금지 합니다.